



지난 달 4월 24일 리얼TV에서 방영중인 "TV 속 세상"에 소개를 위한 촬영이 진행됐다.

"TV 속 세상"은 우리시대의 새로운 이슈와 화두를 찾아 전국 곳곳에 있는 다채로운 현장을 흥미와 재미를 동반해 생동감 있게 전달하는 프로로 우리 생활속 깊숙이 관련되어 있는 여러 분야의 중소기업들을 탐방하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각종 생활 정보와

기술 지식이 있는 신선한 "TV 속 세상"을 소개한다.

이번 본사 촬영은 21세기를 이끌어갈 회사로 부산지역에서 우리 회사가 소개되는 것으로 회사로서는 지난 KTV, MBC 등의 방송매체와 경향신문, 부산일보 등의 각종 신문, 잡지에 소개되는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난 9일에는 리빙TV의 촬영도 이

어졌다. 우리 회사는 리빙TV에서 SPP, 신아, 강남 등의 업체와 함께 방영될 예정이며, 타사와 차별화 되는 우리 회사만의 직원복지와 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촬영이 진행되었다.

이번 두건의 촬영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전 임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번 촬영을 계기로 전 임직원은 더욱

더 회사에 대한 자부심과 애사심을 가지게 되었으리라 기대된다.





**최금식대표이사모친
노환으로 별세**

선보공업(주) 최금식 대표이사의 모친께서 2007년 4월 29일 노환으로 별세하셨다. 빈소는 동아대병원 장례식장 특5호실에 마련 되었으며, 5월 3일 발인하셨다. 공사다망하신 가운데 참석하셔서 조의를 베풀어주신 조문객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현대미포조선 협력사 품질 경쟁력 평가 A등급 업체로 인증



당사는 지난 4월 27일 현대미포조선에서 시행하는 협력사 품질 경쟁력 평가에서 종합평점 산정 결과 A등급 업체로 인증되었다.

이 인증서는 당사의 품질경쟁력 및 운영 시스템을 종합 평가한 것으로 2008년 4월까지 유효하며, 당사와 같이 우수 협력사에 대해서는 경쟁업체와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적용받게 되어 한층 높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사세 확장용 공장용지 5,000평 구매”

우리회사는 그동안 계속해서 시달려 왔던 본사 용지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본사 공장 뒷편 흥티마을 공장용지 5,000평을 신규로 구매 하였습니다.

위치는 현재 본사 건물 뒷편 주차장 시설 바로 뒷편 중 왼쪽편에 있으며 향후 공장 및 사무실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체육대회



모든 선보가족
“한 마음 한 뜻으로”

다선사우회 체육대회 조는 부·차장을 중심으로 편성되었으며, 1조는 김태호 차장과 3BAY, 2조는 임영삼 부장과 2BAY, 3조는 장호길 차장과 관리부, 4조는 강보영 부장과 유니텍 생산부(영도포함), 5조는 김황중 차장과 유니텍 관리부(영도포함)로 각 부서원들이 5개조로 나뉘었다.

승은 3조, 족구 우승은 5조, 피구 우승은 2조, 릴레이 우승은 2조가 차지했다. 통합 우승은 피구와 릴레이에서 우승을 차지한 2조가 우승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또한, 이날의 MVP는 김수환 사원이 차지했다.

선보사원들의 주 종목 경기가 열리는 동안 다른 한 편에서는 선보사원들의 가족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도 마련되었다. 아들을 따라 체육대회에 참가한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윗놀이를 비롯해 여직원과 남편을 따라 참가한 여성 가족들이 참여한 링 던지기 등 번외의 경기가



성황리에 진행되었으며, 아빠를 따라온 아이들에게는 사생대회를 개최하여 선보 직원뿐만 아니라 가족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체육대회가 되었다.

못한 직원들도 대표어사의 배려로 디지털 체중계, 모자 및 수건등으로 아쉬움을 달래 애사심과 소속감을 높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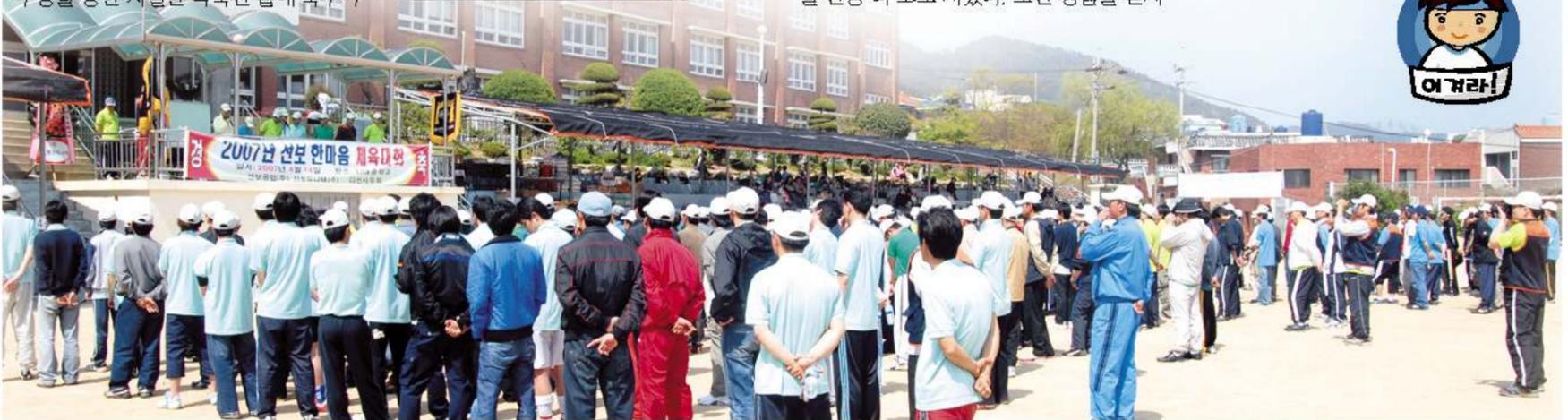
선보의 한 가족은 “늘 일에 바빠 아이들과 같이 놀아주지 못했던게 미안했었는데 회사에서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특히, 큰딸이 사생대회에서 그림을 제법 잘 그리는걸 보고 한편으로 대견스럽고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든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다선 사우회에서 준비한 42" LCD TV, 디지털 카메라 5개, MP3 20개, 금수저 30개 등 푸짐한 경품이 행사의 열기를 한층 더 고조 시켰다. 또한 경품을 받지

이번 행사는 다선 사우회 김동섭 회장이 “가족적인 분위기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말을 한 것과 같이 가족적인 분위기의 행사였다. 예년과 달리 선보유니텍 직원들이 이번에 사우회로 편성됨에 따라 작년보다 규모가 2배 이상 늘어 대규모로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큰 사고 없이 안전하게 행사를 마무리했다.



우승을 향한 치열한 각축전 끝에 축구 우



최홍렬상무의 **이한권의책**

이해와 공감은 바탕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 지혜,

경청

《경청》은 '듣는 사람' 보다 '말하는 사람' 이 더 많은 이 시대와 우리 사회에 가만히 상대에게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소통의 지혜인지 일깨워주는 드라마틱한 자기계발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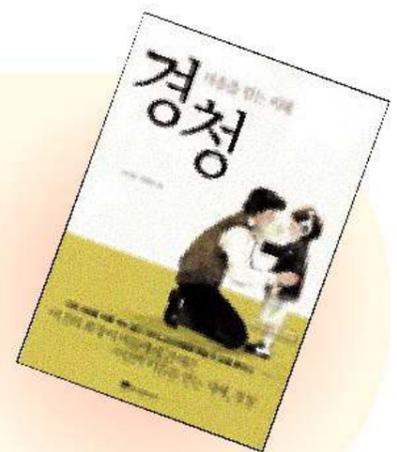
저자는 보통의 대한민국 30대 후반 직장남성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는 단절된 소통의 답답함을 현실적으로 접근시킨다. 직장과 가정이라는 삶의 터전에서 점점 더 주변인물로 소외되어

가는 남성들이 늘어나고 있는 요즘, 이 땅에서 직장인으로, 남편으로, 아버지로 더불어 잘 살아가기 위해 꼭 한 번쯤은 귀 기울여야 할 삶의 자세를 전하는 책이다.

배려에 이어 우리 사회에 필요한 또 하나의 가치

“상대의 말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것이야말로 상대에 대한 최고의 배려이다.”

이청득심(以聽得心), 귀 기울여 듣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지혜이다.





스트레스

스트레스란 어떤 자극에 대한 신체의 반응입니다. 스트레스는 무조건 나쁜것이 아니고, 적절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우리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자신감을 심어주고, 일의 생산성과 창의력을 높여 주게 됩니다.



스트레스가 반복적으로 지속되고 만성화 되면 정서적인 불안과 갈등을 일으키고 정신적, 신체적 장애와 만성질환을 가져옵니다. 스트레스는 항상 존재 합니다. 따라서,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스트레스는 악화되고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요령

- 1 요가, 심호흡, 명상, 점진적 이완운동을 배우십시오. 이러한 것들을 연습할 수 있게 매일 몇 분만 투자하십시오.
- 2 격렬한 유산소운동(조깅, 빠른 걸음, 수영)을 시작 하십시오. 20~30분간 일주일에 3번 이상 하십시오.
- 3 가족이나 업무 이외의 사회모임에 참석 하시고, 그것을 위한 시간을 내십시오.
- 4 불가능한 마감시간이나 목표설정을 피

- 하십시오. 매일 실현 가능한 업무 목록을 만들고 하나하나 그것과 부딪히십시오.
- 5 전화를 무시하고 자동응답기를 켜놓는 것에 익숙해 지십시오.
- 6 매일 당신이 조용히 몇 분을 보낼 수 있는 장소를 찾으십시오.
- 7 긴장이 쌓일 때, 몇 분 동안 명상, 심호흡, 산책할 수 있게 자신을 허락하십시오.
- 8 계속 시계를 보지 마십시오. 모임에 가거나 다른 의무를 다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 9 적개심을 제어하도록 노력하십시오. 만약 누군가가 혹은 무엇인가 당신을 화나게

- 하였다면, 당신의 감정을 조용하고 이성적인 방법으로 표현하십시오.
- 10 당신을 긴장시키고 화나게 하는 상황을 피하는데 익숙해 지십시오. 예를 들어, 은행에서 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을 참기 힘들다면, 은행이 한가한 시간에 가십시오.
- 11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만드십시오.
- 12 당신이 즐기는 취미나 활동을 시작하십시오.
- 13 긴장을 풀기 위해서 술이나 담배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효과는 일시적이고 결국 긴장은 증가됩니다.
- 14 반드시 잠을 충분히 주무십시오.
- 15 일을 집으로 가져가지 마십시오.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당신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고려해 보십시오.
- 16 당신이 진정으로 탈출하고 싶은 시기에 최소한 일년에 한번은 휴가를 계획하십시오.

- 17 청구서에 대해 항상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재정을 관리하는 것에 익숙해 지십시오.
- 18 가끔 새로운 것을 시도하십시오. 다른 나라 음식, 일하는 새로운 방법, 새로운 예술 전시회 가기.
- 19 애완동물을 기르십시오. 특히 당신이 혼자 사신다면, 고양이나 개의 요구 없는 현신은 절망적이고 적대적인 세상을 더욱 견딜 수 있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 20 당신의 한계를 인정하십시오. 때때로 당신의 성취목록과 당신 삶의 긍정적인 면을 작성 하십시오.



'협력업체탐방'은 선보와 함께 일하고 있는 많은 협력업체 중 한 곳을 선정해 해당업체에 대해 알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마련된 코너이다.

서두르지 않고, 그러나 쉬지 않는 기업, 광진엔지니어링

좁은 공간에서 효율적 성과를

광진 엔지니어링은 파이프 스플, 고주파 벤딩을 주생산품으로 하는 생산업체다. 지난 1994년 장림에 설립된 광진엔지니어링은 2004년 유니트용 소형 파이프 피스를 독자적 생산을 목적으로 유정산업 분리시켰다. 유정산업의 '모체'인 셈이

다. 광진엔지니어링은 2002년 부산 강서구 송정동 녹산공단 내로 회사를 옮겼으며 지금은 본사와 김해공장을 합해 총 140여 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1997년부터 지금까지 10여 년째 선보와 인연을 맺고 있는 안수찬 대표는 "첫 거래할 때 선보와의 사이는 돈독했다. 그리고, 선보가 커지면서 구매선이 여러 군데로 나뉘지게 되었고 그러면서 우리

회사가 파이프 스플을 독점하게 되었다. 선보와 일을 하면서 많이 도우면서 우리 회사 역시 많은 성장을 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한 마음으로 모두가 '무한도전'

안수찬 대표는 광진 엔지니어링만의 특징에 대해 "광진은 젊다. 그래서인지 요즘 TV 프로그램처럼 우리 회사 역시 '무한도전'이 가능한 것 같다. 꾸준한 물량을 생산하는데 그치지 않고 끊임없는 신제품 개발을 위해 노력 한다. 새로운 아이템에 대해 겁먹지 않고 도전하는 것이 우리 회사의 가장 큰 원동력인 것 같다"고 말했다.

광진엔지니어링은 현재 우리 회사 제품의 30%를 생산하고 있다. 안수찬 대표는 "선보가 많은 발전을 하면서 확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30%정도 납품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새로운 아이템으로 많은 일들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올해 광진엔지니어링의 목표 220억의 연매출과 더불어 사원들이 다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 폭넓은 목표만큼이나 사원들 또한 많이 아끼는 모습이다. "광진" 하면 믿을 수 있겠다며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매출보다는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힘쓸 예정이라고. 마지막으로 선보에게 "하청업체라는 생각보다는 동등한 입장에서 일했으면 좋겠다. 두 회사 모두가 윈-윈 전략으로 앞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다"며 바라는 말을 전했다.

서두르기 보다는 쉬지 않는 기업-광진 엔지니어링. 계속되는 그들의 '무한도전'을 기대해본다.





14호 칭찬 릴레이

설계부 강대천 대리

“협력과 이해가 중요시하는 사려 깊은 설계사”

선보가족의 14호 칭찬주자로 추천합니다. (추천인: 손성훈)

퇴근시간 이후에도 꼭 한번씩 내려와 물건을 확인해요. 현장 사람들과 다양한 의견도 나누고요...

칭찬 릴레이 14호 주인공으로 선정된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우선 칭찬 릴레이의 주인공으로 선정된 것이 부끄러워요. 제 분야에서 제가 할 일을 한 것뿐인데 추천을 해주니까 부담이 되고 그 부담감만큼 책임감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설계부와 현장은 다루는 일도 많은데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 추천받았다는 것이 뜻 깊은 일인 것 같아요. 이번 칭찬 릴레이의 주인공은 설계부 직원들을 대표해서 받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마운 동료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칭찬 릴레이의 주인공으로 선정하고 싶은 사람만큼 저에게 고마운 사람들이 많아요. 구매부의 강동균 과장님을 시작으로 생산부의 박영호 반장님, 품질보증부의 이현우 계장님, 관리부 안정빈 과장님 등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저에게는 소중한 고마운 분들이죠. 이러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일들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평소 어떤 마음가짐으로 근무하세요?

평소에 일을 할 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일까지 함께 보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설계부와 현장 간에 정보를 많이 나누려고 해요. 일직선상으로 연결되어 있는 문제를 한 가지만 가르쳐주면 간단하지만 다음에 일할 때 경험이 되게 하기 위해 일직선상으로 연결되어 있는 문제를 전후단계에 거쳐 복합적이고 상세하게 알려주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후에 일을 했을 때 문제점이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15호 칭찬 릴레이의 주인공을 추천해 주세요

칭찬 릴레이에 선정되고 나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누구를 추천할까'였어요. 칭찬받아야 마땅할 사람들이 한 두명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고민했죠. 고민 끝에 생산관리부의 김중섭 계장을 추천하려고 해요. 많은 부분에서 배울 점이 많은 김중섭 계장을 15호 칭찬 릴레이의 주인공으로 추천합니다.

칭찬 릴레이는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는 아름다운 문화가 선보에 정착되기를 바라며 펼쳐고 있는 캠페인입니다.



생생 현장의 소리

‘선보’의 막내들, 배관 엔지니어 김상용, 이준우 “처음 마음가짐 그대로~”

모두가 잠깐의 달콤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점심시간. 공장 한 편에서 어린 배관 엔지니어들이 점심시간에도 쉬지 않고 땀 흘리며 무언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 주인공은 바로 김상용, 이준우 엔지니어다.

지금 무얼 하고 계신가요?
저희는 아직 신입이라 배울 것이 많아 점심시간을 이용해 용접 실습 중입니다.

선보에서 일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고등학교 2학년 방학 때 인턴 과정이라고 하기도 애매하지만 선보 일을 잠깐잠깐 했었어요. 회사에 입사하기 전 실습과정의 하나로 와서 일을 했었어요. 그것이 인연이 되어 지난해 11월 선보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어떤 일을 주로 하나요?
저희가 하는 일은 배관조립을 하는 배관 엔지니어예요. 아직도 엔지니어라는 말이 어색해요. 아직도 일에 대한 과정을 배우고 있는 중이라 실수도 많이 하고 모든 과정이 조금씩 서툴러요. 고등학생 때 잠깐 일을

해봤다고 해도 회사에 들어온 것이랑은 많은 차이가 있어요. 회사에 들어온 지 이제 겨우 4개월밖에 되지 않아 아직은 모든 것이 낯설고 하나하나가 새로워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모자란 부분을 연습해보기도 해요. 많은 연습이 필요한 때인 것 같아요. 지금부터 많은 실수를 바탕으로 많은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회사에 입사한 후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아직 선보에 들어온 지 4개월 밖에 되지 않아서 많은 일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여태까지 한 것 중에 기억에 남는 일을 꼽으려면 삼성, 대우, 현대 등 태어나 처음으로 큰 회사를 둘러봤던 일인 것 같아요. 조선사업, 그중에서도 우리가 어느 부분의 역할을 하기 위해 일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파악하게 해줬던 소중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의 포부는 있다면?
선보의 '최고'가 되고 싶어요. 이제 막 일을 시작한 만큼 꿈은 높게 가질수록 좋은 거 같아요. 많이 배우고 실력을 갈고 닦아서 제 기술을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처음이라는 말은 누구에게나 설렘과 떨림을 가지게 한다. 꿈 많은 스무살 사회생활을 첫발을 디딘 이들이 누구보다 멋진 엔지니어가 되길 기대해본다.



틀린 그림 찾기(5개)

1 축하합니다

선보공예주	
생일	설계부 이주연 (6/9)
관리부 한태영 (6/15)	품질보증부 최경호(6/4)
생산2팀 장상권 (6/1)	인사기념일
진정현 (6/12)	구매부 예연희 (6/10)
생산2팀(신력) 신용기 (5/29)	관리부 안정빈 (6/3)
생산3팀 이상하 (6/9)	생산팀 조용실 (6/1)
생산3팀(유성) 안진성 (5/30)	손진선 (6/1)
생산3팀(순해) 심경보 (5/15)	생산3팀 김동섭 (6/1)
	설계부 박문염 (5/16)
	품질보증부 김종민 (6/2)
	선보유니백주
	생일
	대환엔지니어링 김왕근 (5/9)
	인사기념일
	설계부 민병철 (5/22)
	영업부 김광문 (6/2)

‘선보가족’은 여러분의 소중한 글을 기다립니다!

선보가족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글을 보내주세요. 가족들의 편지나 자녀의 일기, 여행 이야기 등... 다양한 글을 빨간 우체통에 넣어주시면 예쁘게 편집하여 사보에 실어드리고, 덕분에 사보와 함께 문화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051-260-5535
011-7435-3454 윤강재 과장